

광주·전남 정치권 추석 민심 잡기 명암

민주당 중산층·서민 정당 이미지 심기 주력
한나라 잇따른 악재... 귀성 인사도 포기할 판

野, 역·터미널·시장 돌며 현 정부 실정 부각
與, 도당위원장 공식... 구체적 계획 못세워

추석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여·야 정치권 분위기가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권 동향의 종대 고비인 추석 대목을 맞아 민주당은 말바닥 민심(民心)을 훑고 다니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심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민심 탐방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잇따른 악재로 착잡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김동철 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함께 (제)5·18 기념재단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2일에는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시각에 맞춰 송정역·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주역 등을 돌며 인사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당은 또 귀성객들에게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비판 및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키는 정책 홍보물도 배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주시당 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도 바닷 민심 훑기에 나서 남구지역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무등시장·봉선시장을 방문해 추석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민심 탐방을 시작했다. 조영택·강기정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양동시장·북부소방서 등을 찾아 고향에서 민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지역 특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시외버스·여객선 터미널·역·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전남지역 22개 시·군 지역별 특산물 판매소와 소평물 연락처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민심 잡기에 분주하다. 반면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분위기는 착잡하다. 신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 집안싸움을 벌이다가 사고 지역당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간 폭력 사건 등으로 잡음이 잇따르면서 추석 전후 민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장 대회의실에서 김동철 시장위원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의회 의원 간담회를 갖고 추석 연휴 기간 서민층과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심 탐방 일정 등을 논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심 잡기 행보를 사실상 포기했다. 광주시당은 10일 "추석 전후로 구체적 민심 탐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간 폭력 사태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의례적으로 해오던 귀성 인사도 계획조차 잡지 못했다. 연휴가 끝난 뒤 중앙당의 정

책에 따라 불심 잡기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 전부다. 한나라당 전남도당도 비슷하다. 지난 8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사고 지역당으로 분류된 뒤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지역구 현역 의원도 전혀 없는데다 지역위원장도 공식으로 남아있고, 또 분과별 위원장도 무

더기로 해임된 상태라 귀성 인사 등 민심 잡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 새 정부가 선정한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전남지역 핵심사업이 줄줄이 누락된데 따른 지역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기초의회 왜 이러나

신안군의회 원구성 마무리 못해 재난 지원 차질
영암군의회 관광성 해외 연수 추진에 비난 일어

전남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등 원구성 후유증과 관광성 해외연수 추진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부의장, 산업위원장을 선출했지만 후반기 의회가 개시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총무위원장 선출을 못하는 등 원구성 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신안군의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제 177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고의적인 회기 불참과 의원들간 갈등으로 군민들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이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 주민 생계안정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진흥사업,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금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처리되지 못해 재난지역 주민

들의 생계안정지원 등에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군정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영암군의회도 오는 17일부터 6박7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나는 해외연수를 놓고 발생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연수 기간이 비배기 등 농번기와 겹친 데다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관광성 위유를 떠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번 연수 비용은 의원 1인당 285만원으로 9명의 의원 전원이 공무원과 함께 떠날 예정이다. 이같은 지방의회 잡음과 관련한 지역민은 "지방 의원들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의무는 도외시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더 치중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농정예산 대폭 늘려 달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건의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11일 내년도 농정예산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 전남도에 전달했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이 건의안에서 "농축산물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값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값은 크게 오르고 있다"며 "농민들이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정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이에 따라 전남도에 농정예산을 대폭 늘려 줄 것을 요청하고, 비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상황조정과 비료 값 인상 농가 부담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 등의 저장, 가공, 유통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과 농작

물 재해보험 지방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올해 전남도 농정예산이 본 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예산 3조4천651억원 가운데 20.3%인 7천299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보다 농정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한대 위원장은 "각종 농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농촌사회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 전남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내년 말 경제 다시 나아질 것"

박지원 "北 권력 공백 맨 핵문제 어려움"

李 대통령 추석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추석 연휴(13~15일)를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웃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넘쳐난 한가위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메시지에서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기쁨에 언제나 드리고 싶다는 마음 일 것이다"면서 "올해는 연휴가 짧아 고향에 못 가는 분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 못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을 위해 일하느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소방관과 경찰관, 국군 장병

여러분께 특별히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동포 여러분과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전통시장에 가 봤는데 손님이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고 장사하는 분들은 추석이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었다고 한숨을 짓고 있었다"면서 "국민 여러분

이 직접 체험하듯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다름 어떤 나라보다 앞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아마 내년 말쯤이면 우리 경제가 다시 나아질 것이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믿고 함께 해 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 육성 메시지는 추석 연휴기간 각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시)은 북한에 권력 공백상태가 생길 경우 군부집권이 확실하며, 대남·대미 관계와 핵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YTN '뉴스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에 지극히 후계구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공백 상태가 올 경우 군부의 집권은 확실하다"며 "군부가 집권하면 집단지도체제가 되지 않을 게 예측되며, 그럴 때는 대남, 대미 관계를 물론 핵문제 해결에 굉장한 어려움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 군부는 중국 군부와 가깝

기 때문에 불행한 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한반도 분단 고착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북한 내부에 권력투쟁 신호가 있다는 외신의 분석에 대해서는 "지나친 보도"라며 "과거의 핵시설 복구에 1년 내외가 필요하고 실제로 북한의 움직임도 필요한 부분을 이동시키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Beneesh' shoes. The main headline asks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Are your feet healthy?).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styles of shoes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Beneesh shoes, such as being made of natural materials and being comfortable.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eneesh stores and a phone number (02-397-3000).